



지난 1988년 6월 무등산 증심사 계곡 주변 상인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 계곡을 파헤쳐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쟁 상흔·행락객 발길에 황폐화 시민단체·언론 힘모아 자정운동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③ 시민운동으로 되살아난 무등산

지난해 국립공원 승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무등산을 방문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2282개의 동·식물이 서식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잘 보존된 무등산의 자연환경이 국립공원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임희진 당시 광주시 공원녹지 과장(현 종합건설본부장)은 “연간 700만명이 찾은 정도로 방문객이 많은 도심 속 산이 이처럼 잘 보존된 비결이 무엇이나고 묻는 심사위원도 있었다”면서 “광주시민들에게 무등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이며 삶 그 자체라는 말을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처럼 무등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는 1980년 중반부터 야외 행락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등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985년 당시 휴일평균 무등산을 찾는 행락객의 수는 무려 5만여명에 이르렀고, 연간 600만명이 무등산을 찾았다. 당시 이들의 목적은 단순한 등산이 아닌 친목·야유회나 술 마시고 음식을 해먹고, 노래하는 것이었다. 지대가 평평한 곳에는 어김없이 각종 취사와 함께 고기 굽는 모습은 물론 술 판이 벌어졌다. 휴일이면 무등산은 고기 굽는 냄새로 꽂찰 정도였다고 한다. 또, 무등산 곳곳에 있는 약수터나 돌샘, 계곡에는 음식을 씻고 설거지한 세제물이 넘쳐나는 등 심각한 수질오염도 발생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임시방편으로 무등산 이곳저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나, 오히려 그 주변은 쓰레기 집하장이 될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났다. 그나마 차량 통행이 가능한 토끼등이나 산장 등은 상황이 나은 편이었지만, 중봉이나 장불재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불에 타는 쓰레기는 한데 모아서 태우고, 나머지는 산속에 파묻는 제2의 산림훼손마저 나타났다.

◇시민주도로 시작된 무등산 살리기 운동=이러한 무등산 훼손을 보다 못한 광주시민이 중심이 돼 지난 1989년 5월 22일 광주 YMCA 강당에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태어났다. 이 단체는 무등산 보호를 위해 ▲무등산 쓰레기 버리지 말고 주워오기 ▲취사 대신 도시락 휴대하기 ▲계곡에서 세제류 쓰지 않기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무등산 아끼고 사랑하기 등 5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의 노력에 지역언론도 힘을 보탤다.

1975년에 ‘도립공원 1번지 무등산’이란 시리즈를 통해 무등산 보호 캠페인에 앞장섰던 광주일보도 ‘무등산을 살리자(1988년)’, ‘병든 산하 자연환경을 되살리자(1990년)’, ‘우리의 산 무등산(1990년)’, ‘무등산 자연림 훼손 이제 그만(1991년)’ 등 연간 시리즈 보도를 통해 무등산 보호 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무등산 살리기 운동이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취사 안 하기’ 등 대표 캠페인이 전국 모든 국·도립국립공원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당시 무등산보호단체가 주력한 운동 중 하나는 ‘신년 해맞이 질서유지’였다. 1990년 새해맞이의 경우 하룻밤에 수백군데에 모닥불이 피워졌고, 소나무 등 수백그루의 나무가 뿔나무로 베어지기도 했다. 무등산보호단체는 1990년 12월 광주시 등과 연계해 해맞이 자제와 질서유지 계몽운동을 펼쳐 다음해인 1991년부터 모닥불이 없어지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1980년대 중반 年 600만 방문

쓰레기에 수질 오염·악취 진동

1989년 무등산보호단체협 출범

5대 캠페인 주도... 언론도 동참

무등산 사랑 운동이 있었다. 무등산의 수난사와 시민 중심의 보존활동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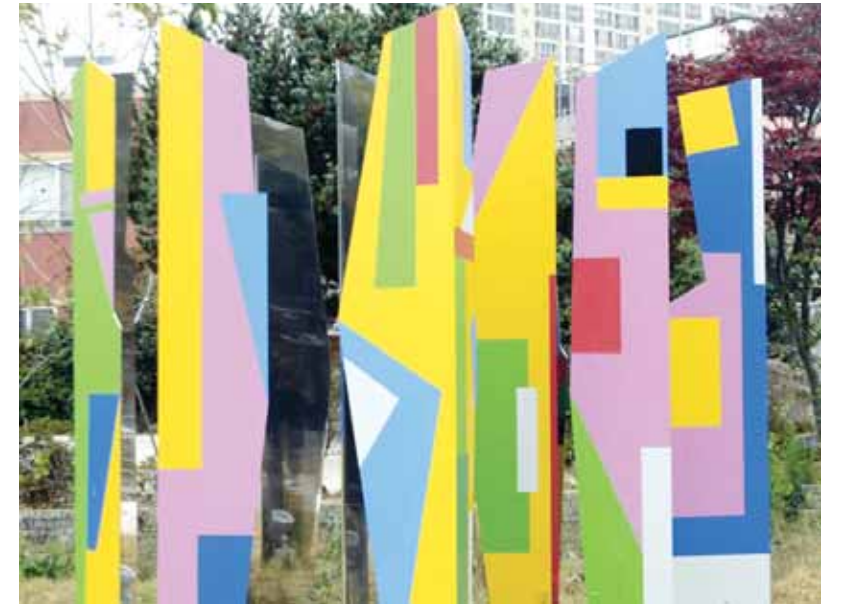
◇일제시대, 한국전쟁 거처 황폐화=1940년대 초반 하더라도 무등산은 그야말로 천연 원시림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일제의 제2차 세계대전 도발에 따른 연료난이 심화하면서 산림훼손이 시작됐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광복과 함께 목재건축붐이 일면서 나무들이 마구 베어졌고, 가질 연료의 대부분이 장작과 숯이었던 탓에 무등산의 벌목은 계속돼 사실상 민등산이 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산림자원보호에 대한 시민의식도 없어 무등산의 산림훼손을 막는 일도 전무했다. 다행히 1960년 중반부터 가질연료가 연탄으로 바뀌고, 제3공화국의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과 푸른산 가꾸기 운동이 맞물리면서 1980년대 들어 무등산의 숲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곧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1980년대 문란한 행락문화로 또 한번 훼손=우리나라

무등산 갤러리 우제길 작 'Light 2011 - 입석대'

스테인레스 스틸(우레탄 도색) 400 x 310 x 330cm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입석대를 극히 절제되고 단순화시킨 선, 면의 조형성으로 표현했다. 우리 고유의 오방색조를 더해 상징성과 한국적 미를 살림과 동시에 무등산에 꽃을 피우고 싶었다.”



나와 무등산 이상욱 광주 YMCA 이사장

까까머리 시절 등산하며 다진 우정



1965년 1월 교복차림으로 눈앞이 핀 입석대 앞에선 친구들의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사진 왼쪽부터 박중준(전 서울선화교 교감)·김왕경(전 산업은행 본점 상무)·권병화(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권영조(사립)·이민재(광주일등학원 이사장)·최인섭(의사)·이정기(호남대 교수)·송진길(미국 이민). 이야기 주인공인 이상욱씨는 친구들의 모습을 촬영하느라 사진속에서 빠져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 무등산은 ‘소꿉’하면 생각나는 곳이다. 초등 1학년 봄 소풍은 밤실(두암동 장군봉아래), 2학년 때는 현존호씨 제각(현 학동 무등파크 자리), 3학년때는 조선대 뒷산, 4학년때는 잣고개, 5학년때는 증심사, 6학년때는 원효사였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증심사, 원효사, 중머리재로, 고등학교 때는 총장사, 원효사, 중머리재를 번갈아가며 다녔다. 내가 무등산 상봉인 천왕봉에 오른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60년 여름방학 때다.

가족과 함께 오른 천왕봉에서는 멀리 바다가 보였는데 그곳에 주둔해 있던 군인이 저씨가 영암 앞바다라고 알려줬다. 무등산을 좋아했던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황금동 미국공보원(USIS)회화 클럽에

가입했던 친구들에게 눈 덮인 무등산에 가자고 바람을 넣었고, 다음날 학동 ‘배고픈다리(현 홍원교)’에서 만났다. 모두 모여 보니 그 중 나와 이민재, 박중준 만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교복과 교모만 쓰고 왔다. 교복도 형이 입던 것이거나 이웃집 형의 것을 물려받은 낡은 교복이었다. 모자도 학교 교모 외에는 구경을 못하던 시절인지라 우리들은 교복에 교모만 쓰고 한겨울 천왕봉에 올랐다.

사진을 취미로 하시던 아버지의 사진기를 꺼내들고 등산에 나선 나는 친구들의 모습을 열심히 찍어 주었는데 당시엔 사진기가 귀해 친구 중에 사진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줄곧 셔터만 눌렀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때 내가 찍힌 사진은 없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1975년 3월 12일자에서 ‘도립공원 1번지 무등산’ 연중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무등산 보호 범시민 캠페인을 제안했다.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